DCS
Daejeon Chungnam Sejong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안녕하십니까?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입니다.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는 권역 내 대학·전문대학을 연계하고 지원하며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원격교육 생태계를 구축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DCS Together>에서는 원격수업 혁신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최신 교수법 동향, 수업노하우, 정책연구 결과,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에 대한 홍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권역 내 공동활용 가능한 강의녹화 스튜디오를 충남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활용이 가능한 원격강의 콘텐츠를 개발 및 공유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본 긴키대학, 메시지 플랫폼 ‘슬랙’을 도입하여 본격적인 온라인 수업 실현

DCS
DaejeonChungnamSejong
대전·충남·세종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일본 긴키대학, 메시지 플랫폼 '슬랙'을 도입하여 본격적인 온라인 수업 실현[1)]

일본 긴키대학은 2020년 7월 6일부터 메시지 플랫폼 '슬랙(Slack)'을 전체 학생(대학원 포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였다. 긴키대학은 해당 플랫폼을 온라인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원격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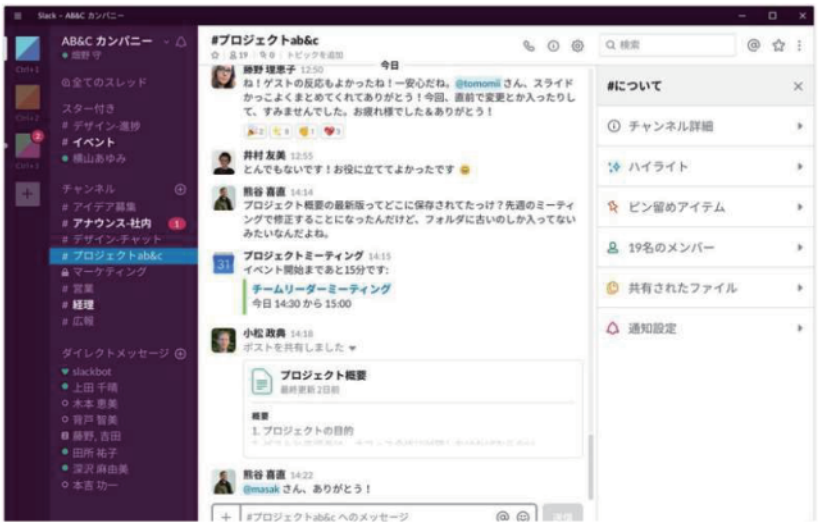
Ⅰ. 일본 긴키대학의 슬랙 도입 경과 및 목적

· 긴키대학(近畿大学)[2)]은 업무 효율화와 가시화, 업무방식 개혁을 실천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교직원을 대상으로 슬랙 도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음

→ 업무 가시화는 업무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업무의 가시화를 통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2019년 4월에는 히가시오사카(東大阪) 및 오사카사야마(大阪狭山), 나라(奈良), 와카야마(和歌山) 등 전체 캠퍼스의 교직원으로 슬랙 도입 대상을 확대하고 일반적인 업무 및 각종 프로젝트에서 슬랙을 이용하여 업무효율화를 실현하였음. 2019년 11월에는 이공학부 정보학과의 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육 현장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음

· 2020년 7월 6일에 일본 대학 최초로 슬랙을 전체 학생(대학원 및 단기대학부[3)] 포함) 및 교직원 3만 6,801명을 대상으로 도입하였음



슬랙의 사용 화면 (출처: 리시드)

1) https://reseed.resemom.jp/article/2020/07/01/409.html (ReseEd, 2020.7.1.); https://www.kindai.ac.jp/about-kindai/ (近畿大学) 〈Keyword〉 온라인 교육, 메시지 플랫폼 슬랙

2) 긴키대학은 오사카부(大阪府) 히가시오사카시(東大阪市)에 본부를 둔 일본의 사립대학임. 1943년 개교하였으며 '실학교육'과 '인격의 도야'를 건학 이념으로 삼고 있음

3) 단기대학부(短期大学部)는 4년제 대학에 병설되어 있는 단기대학을 칭함

· 전교에서 슬랙을 도입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함. 또한 온라인 수업에 슬랙을 활용하여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편의성을 늘려 학생 지원을 확충하고자 함

II. 슬랙을 통한 온라인 교육 활성화

· 긴키대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5월 11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음. 업무 포털 시스템인 유니버설 패스포트(UNIVERSAL PASSPORT), 줌(Zoom), Google Meet(화상회의 시스템), Google Classroom(학습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이나 슬랙을 활용함으로써 온라인 수업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슬랙을 이용하여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수업과 녹화영상 전송 수업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손쉽게 질문을 할 수 있음. 과제 전달과 회수 등도 필요에 따라 슬랙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 또한 연구실, 졸업연구 세미나, 기초 세미나, 실습, 강의 등의 프로젝트 및 그룹 단위로 채널을 만들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지원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었음. 대면과 전화, 메일 등 기존의 커뮤니케이션을 슬랙으로 전환함으로써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 슬랙 일본법인 사사키 세이지(佐々木聖治) 대표는 '긴키대학의 선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슬랙을 다른 IT 툴과 연계하여 디지털 캠퍼스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정착시킬 것이다. 대규모 온라인 수업에 대한 치밀한 지원 및 프로젝트 단위에서 보다 효율적인 교육 및 연구가 추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음